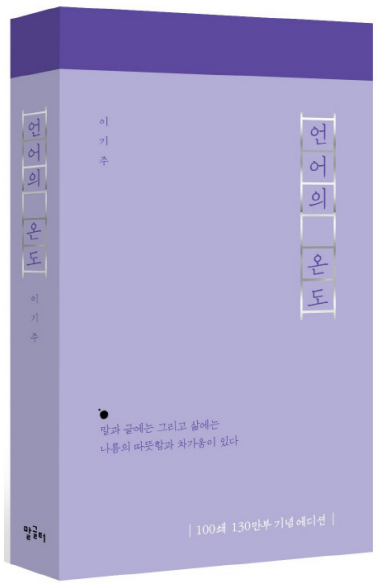


이기주. *언어의 온도.* 고양: 말글터, 2016.

저자에 대해서

저자 이기주(李起周)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며 살아간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주로 쓴다. 활자 중독자를 자처하며 서점을 배회하기 좋아한다. 퇴근길에 종종 꽃을 사서 어머니 화장대에 은밀하게 올려놓는다. 뤽 베송 감독의 영화 '그랑블루'를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는『여전히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에게』『언품(言品)』등이 있다.

'언어의 온도'는 흔히 내뱉는 일상의 말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 모음이다.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읽고 경험한 평범한 삶의 모음이기에 이 책을 읽은 이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3부로 구성된 글 모음들 작가가 경험한 삶에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야기들과 말에 대한 그의 태도가 오롯이 들어나 있다.

말은 약이되고, 의사가 된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야."
"당신 말 들을께요."
"아비다. 잘니내? 그냥 한번 걸어봤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약이 되고, 의사가 된다. 단지, 불편한 관계를 응급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뿌려지는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을 보듬는 것이 언어라고 작가는 말한다.
특별히 말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때가 있다. 시련과 고난의 때가 바로 그 때이다. 이 때, 관계의 깊이를 깊고 그리고 더욱 묵직하게 만드는 '말'의 전제 조건을 '위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위로에는 '헤아림'이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특히나 울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p.70)

그러므로,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다음, 슬픔과 아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들은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충고를 한다.

말이 가진 원래의 의미가 있다

작가는 마치 목회자가 설교하며 원어(原語)의 의미를 밝혀 설교를 엮어 나아가듯, 말의 원래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좋은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자.

"**사과**를 뜻하는 단어 apology 는 '그릇됨에서 멋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달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calendar의 어원은 라틴어 calendarium이다. '회계장부', '빚 독촉' 정도의 의미가 있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 活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思와 헤아림量을 의미하는 한자를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프로**는 Professional의 준말로 그 어원적 뿌리는 '선언하는 고백'이란 뜻의 라틴어 professio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난 전문가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비로소 프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마추어**는 라틴어 amator에서 유래했다.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임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 더는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인지도 모른다."

"**회사**를 뜻하는 company는 com(함께)과 pany(빵)가 결합한 꼴이다. 이를 '함께 빵 팔아서 돈 번 기업'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빵을 나눠 먹는 돈독한 관계, 로 풀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다."

"**리더** leader 의 유래와 관련해 몇가지 설이 있따. 우선 리더에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봉에 나가 싸우는 사람, 먼지를 먼저 뒤집어 쓰는 살마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리더를 '외로움', '인내' 같은 단어와 동의어로 여겼다고 한다. 다른 의견도 있다. 단순히 일행보다 앞장서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애물을 허물고 길을 개척하는 지도자, 즉 '여행을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이다."

정리

한 결론을 향해서 글을 채찍질하는 이론서가 아니라, '말'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작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던 말의 온기를 전해주는 책이기에 한 꼭지 한 꼭지의 글이 따뜻하고, 자전적이고, 또 교훈적이다. '언어의 온도'라고 이름 붙이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한 사람의 입에 담고 있는 말의 '힘'에 대한 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경북 예천에는 말무덤[言塚]이 있다.

>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ㄹ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 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에 아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p.30)

말 한디가 의술이 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낫기도 한다. 반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도 있는 것이 말의 힘이다. 작가는 '언어의 온도'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담은 말과 언어는 곧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돌려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의 품격은 곧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또 그에게 내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을지의 근거가 된다.

적용

작가는 사람이 마음을 담은 말과 언어는 그 어떤 사실 관계 나열보다 강렬하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만나 권면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라며 사실 관계 나열과 그 사실 교훈 삼아 차가운 온도의 가르침을 주려는 강박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언어는 때로는 차갑고, 때로은 따뜻하고, 때로는 뜨거우며, 때로는 미지근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이 필요하듯이. 다만, 멸치를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듯,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말을 할 수 있어야하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온도의 언어들을 선택해야 한다.

또 작가가 힘주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말만으로는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또다른 전달 방식을 말하였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할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꼬옥 안아주던 할아버지는 '소리없는 언어'. 할아버지는 언어가 아니라,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말하였고, 할머니는 그 소리 없는 언어의 따뜻함을 느꼈다. '온도'를 느끼는 체온계가 '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피부'에도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하니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전달하는 매개는 오로지 '언어' 뿐일까?